

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보도 | 2026.7.2.(목) 15:30 | 배포 | 2026.7.2.(목) | | |
| 담당부서 |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감독총괄팀 | 책임자 | 국 장 | 최강석 | (02-3145-816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이주영 | (02-3145-8162) |
| | 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조사기획팀 | 책임자 | 국 장 | 전홍균 | (02-3145-710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고병완 | (02-3145-7102) |

이찬진 금융감독원장,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

1. 간담회 개요

- '26.7.2일(목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제도권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
-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

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요

- 일 시 : '26. 7. 2.(목) 15:30~16:30
 - 장 소 :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
 - 주요 참석자
 - (금융감독원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, 이종오 디지털·IT 부원장보, 가상자산감독국장, 가상자산조사국장 등
 - (업계) 두나무 등 15개* 가상자산사업자 CEO 및 DAXA
- * 원화거래소 5개사, 코인거래소 5개사, 보관업자 5개사

2.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□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

-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머니무브, 비트코인 오지급 등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다소 침체된 모습이었으나,
 -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,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존 금융과의 융합 등에 힘입어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음
-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, 가상자산 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강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음

① 시장 신뢰 회복, 제도권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

-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만 시장의 선택을 받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선례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라고 언급하였음
- 특히, 시장 신뢰의 근간은 공적 규제나 사후적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체계에 있다고 강조하면서,
 - 이를 중시하는 구성원의 인식과 문화가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사적 내부통제체계의 구축·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음

② 제도적 변화에 선제적, 적극적으로 대응

-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, 최근 특정금융정보법, 외국환 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 정비중인 점을 환기하였음
- 법규 개정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규제 준수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, 금융감독원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음

③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

- 향후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모가 더욱 대형화되고 그 유형도 한층 다양화될 수 있으므로,
 - 불공정거래 근절의 일선에 있는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역량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음
- 아울러, 금융감독원도 AI를 활용하여 시장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, 조사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

④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임을 명심

- 이용자를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책임경영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였음
- 구체적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, 관련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었는지, 이용자 피해 예방·구제체계는 합리적인지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하며,
 - 단기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 및 이벤트 실시, 불충분한 정보의 늦장 공시,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은 이용자 신뢰를 상실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음

3. 참석자 발언 요지

-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,
 - 이를 위해 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 등 법령 준수 뿐 아니라 거래지원, 광고·홍보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정비·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힘
 - 다만, 사업자별로 영업 및 인력 규모에 차이가 커, 이용자 수나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점진적 규제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
 - 아울러,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,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 정책적 지원도 요청하였음
- 이에 이찬진 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,
 -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 할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

[별 첨]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 발언